

음란매체가 초등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기수 · 박영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The Effect of Obscene Media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x Consciousness

Lee, Ki - Soo · Park, Young - Soo*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rve as a basis for more effective sex education,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obscene media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x consciousness.

For attaining the purpose,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follows :

- 1) What's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2) How much a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osed to obscene media?
- 3) Is their sex consciousness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being exposed to obscene media and the appearance of secondary sex characteristic?

The subject of study were the 400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were in the sixth grade at elementary school in the city of Paju.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sex consciousness and degree of being exposed to obscene media.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

1) Basic Information

94% of the students investigated were living with their parents. The greatest number of their parents were in their forties. Concerning the religion of their families, 47.5% belonged to Christianity or Catholicism. 47.3% got in touch with obscene media, which indicated that the harmful influence of that media was great.

Their basic knowledge of pregnancy was very poor, as 27.2% weren't sure whether being pregnant could be caused only by shaking hands, hugging or kissing. 34.7% considered it a

natural behavior to contact the other sex. Regarding their practice of sexual behavior, they'd have an experience of hugging or kissing.

2) Group Comparison

The female students underwent the appearance of secondary sex characteristic faster than the male students. As a result of examining if their degree of being exposed to obscene media was affect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secondary sex characteristic,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in all the groups: the entire group, male student group and female student group.

There appeared, howeve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s the number of male student who hadn't yet been exposed to obscene media was less than that of female student who hadn't. And the number of male student who had been much exposed to obscene media was more than that of female student who had.

3) Sex Knowledge, Sex Attitude and Sex Practice

The extent of making contact with obscene media didn't mak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sex knowledge of all the groups. But more extent of getting in touch with obscene media led to more sex attitude and sex practice in the entire group.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se things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secondary sex characteristic, it's found in general that the group that had secondary sex characteristic possessed statistically better sex knowledge than the other group that hadn't. For the male students, there appeared little disparities in three subareas of sex knowledge, sex attitude and sex practice. For the female students, however, the group that had secondary sex characteristic owned better sex knowledge than the other group that hadn't, and the former group looked upon sex attitude as more natural.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 있어 생활의 여유와 더불어 대중매체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은 각종 퇴폐적인 성적 문화에 쉽게 노출되며 여기에 정신적, 육체적 성숙에 의한 사춘기의 조기화 현상, 성도덕의 변화, 각종 섹스몰의 유출, 패락추구의 풍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한 가치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성은 선천적 본능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되어 간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성욕과 성적 행동은 그 기초가 생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 이에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

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성적 호기심과 욕구가 과거에는 결혼 연령의 조기화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으나 현대에 들어 결혼 적정 연령이 늦추어짐에 따라 성적 요구의 발생 시기와 해소할 수 있는 시기 사이에 성욕구 해소의 공백기가 생기게 되므로 인간의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고, 성에 관련된 무질서한 정보의 홍수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변화에 따른 과학적 성지식과 성심리의 자기조절 능력 및 태도를 길러 주고, 여러 가지 변화에 바람직하게 적응해가도록 도와 준다는 의미에서

1) 권이중, 청소년학 개론, (서울 : 교육출판사, 1996), p. 253.

성교육은 필요하다²⁾.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변화를 갖게 해주는 주요 원인은 급속한 매스미디어(massmedia)의 발달과 음란매체를 통한 성에 관한 정보라고 들 수 있다. 이러한 성에 대한 정보는 습득과 처리 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올바른 성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하게 청소년에게 침투되어 잘못된 성충동이나 욕구를 자극시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란매체가 초등학교의 성의식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음란매체가 초등학교의 성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 2) 초등학교의 음란매체 노출정도는 어떠한가?
- 3) 음란매체 노출정도와 2차성징 발현에 따라 성의식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200명, 여학생 200명 총 400명을 임의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음란매체가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심광원(1990), 최수일(1996)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문항을 토대로 초등학교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였다.

3. 조사 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기초 조사 5문항과 성 관련 문항 12문항 총 17개 문항으로 남학생용과 여학생용을 구별하여 작성하였다. 성 관련 문항은 2차 성징 발현에 관하여 2문항, 음란 매체 노출정도에 관하여 1문항, 성지식에 관하여 3문항, 성태도에 관하여 3문항, 성실천에 관하여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 처리

자료의 처리는 연구문제에 따라 첫째,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기초통계량을 빈도조사(Frequency Analysis)하였으며, 둘째, 초등학교의 음란매체의 노출정도를 χ^2 -TEST 하였고, 셋째, 음란매체 접촉정도에 따라 성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χ^2 -TEST를 하였고, 2차 성징 발현유무에 따라 성의식이 다른지 하위 영역별로 t-TEST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남녀 학생 478명중에서 불성실한 응답과 성의식에 관한 문항에서 응답이 빠진 경우를 제외하고 남학생 200명, 여학생 200명 모두 400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기초 조사의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조사를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학생들은 거의(94%)가 양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부모 중에서 한 분 혹은 두 분 모두 계시지 않는 경우는 24명(6%)으로 나타났다.

2) 권이중, 청소년학 개론, (서울 : 교육출판사, 1996), p. 253.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성 | 구 분 | 빈도 | | % | | |
|----------------|---------|-----|-------|------|------|--|
| | 남 | 200 | | | 50.0 | |
| 여 | 200 | | | 50.0 | | |
| 부모동거상태 | 양친 | 376 | | | 94.0 | |
| | 부친 | 12 | | | 3.0 | |
| | 모친 | 8 | | | 2.0 | |
| | 독립 | 4 | | | 1.0 | |
| 부모연령분포 | 구 분 | 부 | | 모 | | |
| | | 빈도 | % | 빈도 | % | |
| | 30대 | 46 | 11.5 | 176 | 44.0 | |
| | 40대 | 330 | 82.5 | 213 | 53.3 | |
| | 50대 | 16 | 4.0 | 5 | 1.3 | |
| | 60대 | 2 | .5 | 0 | 0 | |
| 부모직업* | 기타 | 6 | 1.5 | 6 | 1.5 | |
| | 있다 | 378 | 95.9 | 206 | 52.3 | |
| 부모학력* | 없다 | 16 | 4.1 | 188 | 47.7 | |
| | 초등학교 | 25 | 6.3 | 34 | 8.0 | |
| | 중·고등학교 | 221 | 56.1 | 268 | 68.0 | |
| 가정종교 | 대학교 | 148 | 37.6 | 92 | 23.4 | |
| | 구 분 | 빈도 | | % | | |
| | 불교 | 113 | | 28.3 | | |
| | 기독교·천주교 | 190 | | 47.5 | | |
| 2차성징 발현 | 기타 | 97 | | 24.2 | | |
| | 발현 | 107 | | 26.8 | | |
| 음란매체 노출정도 | 미발현 | 293 | | 73.3 | | |
| | 매우 자주 봄 | 7 | | 1.8 | | |
| | 자주 봄 | 7 | | 1.8 | | |
| | 가끔 봄 | 32 | | 8.0 | | |
| | 조금 봄 | 143 | | 35.8 | | |
| 성지식에 대한 기초조사** | 안 본다 | 211 | | 52.8 | | |
| | 그렇다 | 41 | | 3.4 | | |
| | 잘 모름 | 285 | | 23.8 | | |
| 성태도에 대한 기초조사** | 아니다 | 874 | | 72.8 | | |
| | 그렇다 | 416 | | 34.7 | | |
| | 잘 모름 | 479 | | 39.9 | | |
| 성실천에 대한 기초조사** | 아니다 | 305 | | 25.4 | | |
| | 여러 번 | 100 | | 8.3 | | |
| | 한 번 | 143 | | 11.9 | | |
| 없다 | 957 | | 79.8 | | | |
| 계 | 400 | | 100.0 | | | |

* 사망자 6명 제외

**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에 대한 문항은 이성간에 손을 잡거나 포옹, 뽀뽀를 하면 아기를 갖게 되는가,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일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며 빈도의 계는 1200명 임.

부모의 연령분포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다음으로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95.5%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52.3% 정도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학교 졸업을 포함한 대학교 졸업이 37.6%였다. 어머니의 경우도 아버지와 거의 같았으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좀더 많아서 68%를 차지하였다.

종교의 경우에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가장 많아서 47%(190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불교로 28%를 차지하였다. 기타는 24.2%로 나타났다.

2차 성징이 나타난 경우는 전체적으로 26.8% 정도 되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남녀별 차이 비교는 연구문제에 따른 집단별 비교를 뒤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었다.

음란매체 노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자주 ; 7명, 자주 ; 7명, 가끔 ; 32명, 조금 ; 143명, 그리고 보지 않는 경우는 211명(52.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별 비교에서는 정상분포곡선을 가정하는 의미에서 매우 자주, 자주, 가끔, 조금의 3가지 경우를 묶어서, 자주 접촉(46명), 조금 접촉(143명), 접촉 안 함(211명)의 3집단으로 다시 구분하여서 비교하였다.

성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성과 손을 잡거나 포옹, 뽀뽀를 하면 임신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4%,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바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72.8%로 나타나 많은 어린이가 임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태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이성과 손을 잡거나 포옹, 뽀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25.4%로 나타났다. 성실천을 묻는 질문에서 이성과 손을 잡거나 포옹, 뽀뽀를 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어린이가 8.3%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79.8%로 나타났다.

2. 음란매체와 2차 성징에 따른 집단간의 비교

남녀의 성별에 따라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차 성징의 발현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21명(10.5%)에 불과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86명(43.0%)이 2차 성징이 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녀 학생간에 여학생의 2차 성징의 발현 시기가 이르다는 뜻으로, 통계적으로 의미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3.91$, $P<.01$).

표 2. 남녀의 성별과 2차 성징의 발현 관계

| 2차 성징 | 남 | | 여 | | 계 | |
|-------|-----|-------|-----|-------|-----|-------|
| | N | % | N | % | N | % |
| 발 현 | 21 | 10.5 | 86 | 43.0 | 107 | 26.8 |
| 미발현 | 179 | 89.5 | 114 | 57.0 | 293 | 73.3 |
| 계 | 200 | 100.0 | 200 | 100.0 | 400 | 100.0 |

$\chi^2 = 53.906$. Df=1, $P<.01^{**}$

(** ; $P<.01$)

남녀의 성별에 따라 음란매체 노출정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 학생에 따라 음란매체의 노출 정도가 다른지 비교하여 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 있는 차이를 드러내었다($\chi^2=22.217$, $P<.01$).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음란매체와 접촉을 안하고 있는 경우는 52.8%였고, 음란매체와 접촉을 하는 경우는 47.2%(11.5%+35.8%)로 높은 편이었으며, 많이 접촉하는 경우도 11%나 되었다.

표 3.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란매체 노출 정도

| 노출 정도* | 남 | | 여 | | 계 | |
|--------|-----|-------|-----|-------|-----|-------|
| | N | % | N | % | N | % |
| 많은편 | 28 | 14.0 | 18 | 9.0 | 46 | 11.5 |
| 적은편 | 90 | 45.0 | 53 | 26.5 | 143 | 35.8 |
| 없는편 | 82 | 41.0 | 129 | 64.5 | 211 | 52.8 |
| 계 | 200 | 100.0 | 200 | 100.0 | 400 | 100.0 |

$\chi^2 = 22.217, Df=2, P<.01^{**}$

*주2회 이상은 많은 편, 주1회는 적은 편, 안보는 경우는 없는 편으로 함.

** ; P<.01

남녀별 집단으로 볼 때에 음란매체와의 접촉이 많은 편에 속하는 학생들은 남자가 14% 인 반면 여자는 9%로 남자가 많았으며, 적게 접촉하는 편에서도 남자는 45%나 되고 여자는 26%였다. 그리고 음란매체와 접촉을 안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여자가 6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자는 41%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 2차 성징 발현 유무에 따른 음란매체 노출 정도

전체 학생들에서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라 음란매체 노출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차 성징이 발현한 경우와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 따

표 4. 2차 성징 발현 유무와 음란매체 노출 정도

| 노출 정도 | 발 현 | | 미 발 현 | | 전 체 | |
|-------|-----|-------|-------|-------|-----|-------|
| | N | % | N | % | N | % |
| 많은편 | 12 | 11.2 | 34 | 11.6 | 46 | 11.5 |
| 적은편 | 31 | 29.0 | 112 | 38.2 | 143 | 35.8 |
| 없는편 | 64 | 59.8 | 147 | 50.2 | 211 | 52.8 |
| 계 | 107 | 100.0 | 293 | 100.0 | 400 | 100.0 |

$\chi^2 = 3.269, Df=2, P >.05$ (NS)

라 음란매체를 더 많이 접촉한다거나 덜 접촉한다는 보고는 본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남학생들만 선택하여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라 음란매체 노출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남학생의 2차 성징 발현 유무와 음란매체 노출 정도

| 노출 정도 | 발 현 | | 미 발 현 | | 전 체 | |
|-------|-----|-------|-------|-------|-----|-------|
| | N | % | N | % | N | % |
| 많은편 | 4 | 19.0 | 24 | 13.4 | 28 | 14.0 |
| 적은편 | 6 | 28.6 | 84 | 46.9 | 90 | 45.0 |
| 없는편 | 11 | 52.4 | 71 | 39.7 | 82 | 41.0 |
| 계 | 21 | 100.0 | 179 | 100.0 | 200 | 100.0 |

$\chi^2 = 2.574, Df=2, P>.05$ (NS)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들만 선택하여 2차 성징의 발현 유무에 따라 음란매체 노출 정도가 다른지 교차 분석하여 본 결과, 오히려 미발현 학생들이 자주 보는 학생들이 있는 등,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574, P>.05$).

여학생들만 선택하여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라 음란매체 노출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여학생의 2차 성징 발현 유무에 따른 음란매체 노출 정도

| 노출 정도 | 발 현 | | 미 발 현 | | 전 체 | |
|-------|-----|-------|-------|-------|-----|-------|
| | N | % | N | % | N | % |
| 많은편 | 8 | 9.3 | 10 | 8.77 | 18 | 9.0 |
| 적은편 | 25 | 29.1 | 28 | 24.6 | 53 | 26.5 |
| 없는편 | 53 | 61.6 | 76 | 66.7 | 129 | 64.5 |
| 계 | 86 | 100.0 | 114 | 100.0 | 200 | 100.0 |

$\chi^2 = 4.640, Df=2, P >.05$ (NS)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학생들만 선택하여 2차 성징의 발현 유무에 따라 음란매체 노출 정도가 다른지 분석하여 본 결과에서도 남학생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6403, P>.05$).

4. 음란매체 노출정도와 2차 성징 발현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

전체 학생에서 매체의 노출 정도에 따라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이 다른지 알아본 결과는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음란매체의 노출 정도에 따라 성지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교차분석해

본 결과 노출이 되어도 성지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면 “좋아하는 이성과 포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어린이 중 음란매체에 많이 노출된 어린이가 34.8%인데 비해 노출이 안된 어린이는 23.2%로 나타나는 등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좋아하는 이성과 뽀뽀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P<.01$ 수준에서 차이를 크게 나타내었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란매체 노출 정도는 성실천 관련 문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이성과 손

표 7. 음란매체 노출 정도에 따른 성지식 분석

| 성지식 문항 | 응답 | N % | 음란매체 노출 정도 | | | 계 | χ^2 Df 유의도 |
|-------------------------------|-----|--------|------------|------|------|----------------------|-----------------------|
| | | | 많은편 | 적은편 | 없는데 | | |
| 이성과 손을 잡으면 아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 N | 1 | 1 | 2 | .734 4 .947 NS | |
| | | % | 0.7 | 0.5 | 0.5 | | |
| | 잘모름 | N | 8 | 21 | 36 | | 65 |
| | | % | 17.4 | 14.7 | 17.1 | | 16.3 |
| | 아니다 | N | 38 | 121 | 174 | | 333 |
| | | % | 82.6 | 84.6 | 82.5 | | 83.3 |
| 이성과 포옹을 하면 아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 N | 3 | 2 | 5 | 10 | 6.614 4 .158 NS |
| | | % | 6.5 | 1.4 | 2.4 | 2.5 | |
| | 잘모름 | N | 9 | 43 | 48 | 100 | |
| | | % | 19.6 | 30.1 | 22.7 | 25.0 | |
| | 아니다 | N | 34 | 98 | 158 | 290 | |
| | | % | 73.9 | 68.5 | 74.9 | 72.5 | |
| 이성과 뽀뽀를 하면 아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 N | 4 | 12 | 13 | 29 | 6.950 4 .139 NS |
| | | % | 8.7 | 8.4 | 6.2 | 7.3 | |
| | 잘모름 | N | 7 | 49 | 64 | 120 | |
| | | % | 15.2 | 34.3 | 30.3 | 30.0 | |
| | 아니다 | N | 35 | 82 | 134 | 251 | |
| | | % | 76.1 | 57.3 | 63.5 | 62.8 | |
| 계 | N | 46 | 143 | 211 | 400 | | |
| | % | 100 | 100 | 100 | 100 | | |

표 8. 음란매체 노출정도에 따른 성태도 분석

| 성태도 문항 | 응답 | N % | 음란매체 노출 정도 | | | 계 | χ^2 Df 유의도 |
|---------------------------------------|-----|--------|------------|------|------|------|-----------------------------------|
| | | | 많은편 | 적은편 | 없는편 | | |
| 좋아하는 이성과 손을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렇다 | N | 29 | 87 | 118 | 234 | 8.101 4 .088 [†] |
| | | % | 63.0 | 60.8 | 55.9 | 58.5 | |
| | 잘모름 | N | 9 | 47 | 74 | 130 | |
| | | % | 19.6 | 32.9 | 35.1 | 32.5 | |
| | 아니다 | N | 8 | 9 | 19 | 36 | |
| | | % | 17.4 | 6.3 | 9.0 | 9.0 | |
| 좋아하는 이성과 포옹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렇다 | N | 16 | 42 | 49 | 107 | 12.675 4 .013 [*] |
| | | % | 34.8 | 29.4 | 23.2 | 26.8 | |
| | 잘모름 | N | 14 | 54 | 112 | 180 | |
| | | % | 30.4 | 37.8 | 53.1 | 45.0 | |
| | 아니다 | N | 16 | 47 | 50 | 113 | |
| | | % | 34.8 | 32.9 | 23.7 | 28.3 | |
| 좋아하는 이성과 뽀뽀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렇다 | N | 12 | 38 | 25 | 75 | 17.375 4 .002 ^{**} |
| | | % | 26.1 | 26.6 | 11.8 | 18.8 | |
| | 잘모름 | N | 16 | 48 | 105 | 169 | |
| | | % | 34.8 | 33.6 | 49.8 | 42.3 | |
| | 아니다 | N | 18 | 57 | 81 | 156 | |
| | | % | 39.1 | 39.9 | 38.4 | 39.0 | |
| 계 | N | 46 | 143 | 211 | 400 | | |
| | % | 100 | 100 | 100 | 100 | | |

([†]; P<.10, ^{*}; P<.05, ^{**}; P<.01)

을 잡는 일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서는 음란매체에 노출이 없는 편인 학생들은 성실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지만(66.8%) 음란매체 노출이 많은 학생들은 성실천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적어서(34.8%) 집단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음란매체 노출이 성지식은 높여주지 못하면서 성태도나, 성실천 쪽의 탈선만 조장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성징의 발현 유무에 따라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변량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10과 같았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차 성징이 발현 유무에 따라서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성지식 면에서 2차 성징의 발현과 미발현에 따라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드러내었다(t=3.648, P<.01). 즉 2차 성징이 발현한 집단(M=2.819)이 미발현 집단(M=2.648)보다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태도와 성실천 면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남학생만을 선택하여 2차 성징의 발현 유무에 따라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변량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11과 같았다.

표 9. 음란매체 노출에 따른 성실천 분석

| 성실천 문항 | 응답 | N % | 음란매체 노출 정도 | | | 계 | x ² Df 유의도 |
|-------------------|-----|--------|------------|------|------|------|-------------------------------|
| | | | 많은편 | 적은편 | 없느편 | | |
| 이성과 손을 잡은 일이 있습니까 | 여러번 | N | 15 | 35 | 35 | 85 | 28.236 ⁴ .00** |
| | | % | 32.6 | 24.5 | 16.6 | 21.3 | |
| | 한 번 | N | 15 | 46 | 35 | 96 | |
| | | % | 32.6 | 32.2 | 16.6 | 24.0 | |
| | 없다 | N | 16 | 62 | 141 | 219 | |
| | | % | 34.8 | 43.4 | 66.8 | 54.8 | |
| 이성과 포옹을 한 일이 있습니까 | 여러번 | N | 2 | 5 | 1 | 8 | 11.493 ⁴ .022* |
| | | % | 4.3 | 3.5 | 0.5 | 2.0 | |
| | 한 번 | N | 7 | 11 | 11 | 29 | |
| | | % | 15.2 | 7.7 | 5.2 | 7.3 | |
| | 없다 | N | 37 | 127 | 199 | 363 | |
| | | % | 80.4 | 88.8 | 94.3 | 90.8 | |
| 이성과 뽀뽀를 한 일이 있습니까 | 여러번 | N | 2 | 4 | 1 | 7 | 16.673 ⁴ .002** |
| | | % | 4.3 | 2.8 | 0.5 | 1.8 | |
| | 한 번 | N | 6 | 8 | 4 | 18 | |
| | | % | 13.0 | 5.6 | 1.9 | 4.5 | |
| | 없다 | N | 38 | 131 | 206 | 375 | |
| | | % | 82.6 | 91.6 | 97.6 | 93.8 | |
| 계 | N | 46 | 143 | 211 | 400 | | |
| | % | 100 | 100 | 100 | 100 | | |

(* ; P<.05, ** ; P<.01)

표 10. 2차 성징 발현 유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 정도의 분석

| 구분 | 발현유무 | N | M | SD | t | Sig. |
|-----|------|-----|--------|-------|-------|---------|
| 성지식 | 발현 | 107 | 2.8193 | .3247 | 3.648 | .00** |
| | 미발현 | 293 | 2.6485 | .4427 | | |
| 성태도 | 발현 | 107 | 1.8442 | .6045 | 1.315 | .189 NS |
| | 미발현 | 293 | 1.9306 | .5728 | | |
| 성실천 | 발현 | 107 | 2.6760 | .3897 | 1.147 | .252 NS |
| | 미발현 | 293 | 2.7281 | .4064 | | |

** ; P<.01)

표 11. 남학생의 2차 성징 발현 유무에 따른 분석

| 구분 | 발현유무 | N | M | SD | t | Sig. |
|-----|------|-----|--------|-------|-------|---------|
| 성지식 | 발현 | 21 | 2.7937 | .3870 | 1.652 | .100 NS |
| | 미발현 | 179 | 2.6220 | .4571 | | |
| 성태도 | 발현 | 21 | 2.0635 | .6202 | 1.118 | .265 NS |
| | 미발현 | 179 | 1.9106 | .5897 | | |
| 성실천 | 발현 | 21 | 2.6508 | .4770 | .465 | .642 NS |
| | 미발현 | 179 | 2.7002 | .4581 | | |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에서는, 2차 성징이 발현유무에 따라서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 면 모두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만을 선택하여 2차 성징의 발현 유무에 따라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변량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여학생의 2차 성징 발현 유무에 따른 분석

| 구 분 | 발 현 유 무 | N | M | SD | t | Sig. |
|-----|---------|-----|--------|-------|-------|---------|
| 성지식 | 발 현 | 86 | 2.8256 | .3099 | 2.529 | .012* |
| | 미발현 | 114 | 2.6901 | .4177 | | |
| 성태도 | 발 현 | 86 | 1.7907 | .5920 | 2.118 | .035* |
| | 미발현 | 114 | 1.9620 | .5463 | | |
| 성실천 | 발 현 | 86 | 2.6822 | .3684 | 1.883 | .061 NS |
| | 미발현 | 114 | 2.7719 | .3050 | | |

(* ; P<.05)

표 12에서 보면 성지식과 성태도 면에서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드러내었다. 즉 성지식 면에서는 2차 성징이 발현한 집단(M=2.826)이 발현하지 않은 집단(M=2.69)보다 높아서 더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태도에 있어서도 발현한 집단(M=1.79)이 미발현한 집단(M=1.96)보다 성태도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실천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못하였으나, 2차 성징이 발현한 집단(M=2.68)이 미발현한 집단(M=2.77)보다 성실천이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음란매체가 초등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초등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 2) 초등학생의 음란매체 노출정도는 어떠한가?
- 3) 음란매체 노출정도와 2차 성징 발현에 따라 성의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의 대상으로는 파주시내 초등학교 6학년 남, 여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음란매체의 노출정도, 성의식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초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학생의 94%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부모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가정의 종교로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47.5%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47.3%가 음란매체에 접촉하고 있어서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적어서 27.2%의 학생이 악수를 하거나, 포옹, 뽀뽀를 할 경우에 임신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으며, 이성과의 접촉은 34.7%의 어린이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실천에 있어서는 20.2%의 학생이 이성과 손을 잡거나 포옹, 뽀뽀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태보고는 학생들에게 음란매체 접촉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성교육의 시기를 결정하는 기초를 제공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2) 집단간의 비교를 통하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2차 성징 발현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징의 발현 유무에 따라 음란매체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나, 남학생

에서나, 여학생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학생에 따라서는 음란매체 노출 정도가 없는 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았고,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등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는 음란 매체의 노출방지를 위하여 여학생보다는 특히 남학생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 등의 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음란매체의 노출정도에 따라서는 전체 학생이 성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태도와 성실천에 있어서는 음란매체의 노출정도가 많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성실천의 회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성징의 발현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성지식 영역에서 2차 성징이 발현한 집단이 미발현한 집단보다 성지식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에서는 성지식, 성태도, 성실천 3가지 하위영역에서 모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에서는 성지식과 성태도 영역에서 2차 성징 발현한 집단이 미발현한 집단보다 성지식이 높고, 성태도 영역에서도 좀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음란매체의 접촉 정도가 그 내용 상으로 보아 올바른 성지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성실천의 정도를 높여주는 부작용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의식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 항목이 한정된(임신가능성,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이성간 신체적 접촉) 관계로 전반적인 조사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고, 그 대상도 한 개 학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좀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성의식 조사척도의 개

발과 더불어 대상 학년의 확대를 통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아울러 실태조사에 머문 본 논문에서 나아가, 음란매체 접촉 방지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단행본>

1. 권이중, 청소년학 개론, 서울 : 교육출판사, 1996.
2. 김성태, 성이란, 새교육 제2월호, 1984.
3. 박영수, 학교 보건학, 서울 : 신광출판사, 1991.
4. 부정남, 청소년의 성의식과 매스미디어, 교육연구 제23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89.
5. 새세계대백과사전, 서울 : 태극출판사, 1973.
6. 성교육 지도연구회, 성교육 사례집, 서울 : 신원출판사, 1982.
7. 이재분, 외국의 성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6.
8. 이현주 외 2인,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입기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3.
9. 이흥구, 교육사회학, 서울 : 재동문화사, 1975.
10. 임광호, 청소년의 성모랄 정립에 관한 소고, 교육전남, 전남교위, 1982.
11. 전광문, 고교생을 위한 순결교육, 서울 : 동구출판사, 1968.
12. 정원식, 현대 교육 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1980.
13. 홍강의, 2020년 우리 청소년의 모습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1996.
14. C. E Bruess & J. S Greenberg, Sexuality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N. Y. :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1988.
15. E. B Hurlock, Child Development, New York : Mcgraw - hill, Inc, 1972.
16. S. Fried, 설영환역, 프로이드 심리학 해설, 서울 : 선영사, 1990.

17. H. Gleitmaan, 임능빈역, 일반심리학, 서울 : 서울과학사, 1988.
18. J.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 1916.
19. K. F. Schaff, 황순자역, 정신건강과 성역할, 서울 : 형설출판사, 1987.
20. 問宮武, 性教育の年層別プログラム, 総合教育技術, 동경 : 小學館, 1973.
21. 村松博雄外三人, 중학교 성교육사전, 동경 : 구담사, 1974.